

ITU의 기금 모금 방식

회원비와 자율 분담금, 비용회수 등에 관한 사항

ITU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UN 전문 기구입니다. 전 세계를 연결한다는 사명 아래, ITU는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과 위성궤도를 국제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통신 시스템이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기술 권고를 작성하고, 글로벌 통신 발전을 촉진합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ITU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적절한 기금 모금이 필요합니다.

ITU의 총 재정 중 약 19%는 주로 ITU 출판물 판매, 위성 네트워크 신청 수수료, 국제 수신자 부담 고유번호(UIFN) 등의 활동에 따른 비용회수를 통해 발생합니다.

또한, ITU는 특히 UN지정 최빈개도국(LDCs)내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과 이행을 위해 배정되는 자율 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발굴합니다. 자율 분담금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들은 2012년 1천만 CHF(스위스 화폐단위) 규모였던 것에 반해, 2013년에는 1700만 CHF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분담금 제도 운영 방식

회원국과 부문회원은 단계별 분담금 등급을 각자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신의 분담금을 정합니다. ITU 전권회의에서, 각 회원국은 ITU 헌장과 협약에 정의된 한정된 수의 연 분담금 단위¹⁾들 중 자율적으로 자국의 분담금 등급을 선택합니다. ITU 이사회는, 자연재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회원국들의 분담금 부담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해 줄 수 있습니다. ITU와 그 자매기관인 만국우편연합은 회원국들에게 분담금 등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UN 기구들입니다.

단일 분담금 1단위는 2006년부터 318,000 CHF 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은 40단위 등급에서 2단위 등급까지 1단위 단계씩 선택할 수 있으며, 2단위 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1½, 1, ½, ¼, 1/8, 1/16 단위 등급 단계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N의 최빈개도국 명단에 포함된 회원국과 ITU 이사회의 특별 승인을 받은 국가들에 한하여 1/8 및 1/16단위의 분담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문회원들의 분담금은 회원국 분담금 단위를 나누어 산출합니다. 현재, 부문회원의 분담금 1단위는 회원국 분담금 1단위의 1/5인 63,600 CHF 입니다. ITU 기술 부문(ITU-R 또는 ITU-T) 참여를 위한 최소 연 회비는 1단위의 절반인 31,800 CHF 입니다. 그러나 2010년 과달라하라 전권회의는 1인당 연 소득이 2,000 US달러 미만인 국가들의 부문회원들이 2014년 말까지인 시범기간 동안 축소 회원비(연간 3,975 CHF)로 ITU-T와 ITU-R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ITU의 전기통신개발부문(ITU-D)의 최소 연 회원비는 7,950 CHF 이며, 개발도상국 부문회원은 좀 더 낮은 회원비인 3,975 CHF가 적용됩니다.

준회원 자격의 민간 기업들은 ITU 연구반 한 곳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비는 ITU-R과 ITU-T는 10,600 CHF, ITU-D는 3,975 CHF 으로 고정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 ITU 헌장 제28조 및 ITU 협약 제33조

대학과 R&D기관의 ITU활동 참여 장려를 위해 과달라하라 전권회의에서 도입된 학계 회원의 회원비는 3,975 CHF이며 개발도상국(UN 지정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도상국, 내륙 개발도상국, 시장경제전환국)의 기관인 경우 1,987.50 CHF 입니다.

모든 회원국과 학계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40 단위 이상까지 자신의 분담금 단위 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이 선택한 분담금 단위 수를 축소하고자 할 때는, 예산 안정성 보장을 위해 회원국은 어떤 전권회의에서라도 15% 감소폭으로만 축소할 수 있습니다(15% 축소 후 가장 가까운 분담금 단위로 결정).

분담금 단위 제도는 ITU의 2년 단위 예산 책정 과정에서 회원국 및 부문회원 모두에 명확하고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회원국들의 분담금이 책정되면, 발표된 분담금 단위의 총 수를 가지고 전권회의에서 재정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국가별 분담금 단위 현황

분담금 단위 제도에 따라 193개 회원국 모두는 각자의 분담금 등급을 선택합니다. 선진국,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실제 액수의 상당 부분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분담금 지급 비율 상위 10개 국가는 2012 - 2015년 기간의 총 재정 중 약 56%를 부담했습니다. ITU에서 최대 분담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은 일본과 미국(각 30단위), 프랑스와 독일(각 25단위), 캐나다(18단위), 이탈리아와 러시아(각 15단위),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각 13단위), 중국 12단위, 스위스, 인도, 한국, 영국(각 10단위)입니다.

전체적으로 2단위를 초과하는 분담금을 내는 24개국은 회원국은 분담금 전체 재정의 81%를 차지합니다. 분담금 2단위 또는 그 이하를 내는 169 개국은 나머지 19%를 차지합니다. 후자의 경우 44개국이 최빈개도국, 최소 규모 국가들이며, 이 국가들은 분담금 1단위의 1/16을 지급하고 ITU의 중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재정 상황, 자국 ICT 분야 규모, 기타 요인 등에 따라 분담금을 확대하기도 축소하기도 해왔으며, 그 결과 ITU의 총 재정 역시 변동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인도, 한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확연하게 분담금의 금액을 늘린 반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분담금 중 1 - 2 단위 정도를 축소했습니다. 2012 - 2013 년의 분담금을 지난 2년과 비교하면 총 분담금 액수는 3 단위 줄어들었습니다.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95% 이상의 분담금이 제 때 지급되지만 지급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자세한 지침이 정의되었습니다.

ITU 헌장(제 28조, 169)에 따라, ITU에 지급을 연체한 회원국은 연체 금액이 지난 2년간 지급하기로 한 분담금 수준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투표권을 잃게 됩니다.

부문회원 또는 준회원의 지급 연체의 경우, 연 분담금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후 ITU 참여가 중지됩니다. 재 지급 일정이 협상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경우, 부문회원 또는 준회원은 분담금 미지급을 근거로 참여 중지를 통지 받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 회원에서 제외됩니다.

연체 분담금에는 ITU의 각 재정년도의 4개월째가 되었을 때 시작일 부터 그 다음 3개월간 연 3퍼센트의 이자가 적용 되며, 7개월째부터는 연 6퍼센트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총 연체액은 ITU회원들과 운영부서, ITU 사무국의 협조로 2006년부터 2014년 사이 크게 줄었습니다.